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모성 연구

이 병 순*

1. 문제제기
2. 모성과 가부장제
3. 위장된 모성
4. 맺음말

* 숙명여대 국문과 강사

국문초록

이 글은 최정희의 1930년대 후반 소설을 '모성'이라는 틀로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씌어진다. 최근 들어 최정희 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인공이 여성과 모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모성으로 귀결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여성 입술, 어머니입을 확인한 주인공이 결국 모성으로 회귀한다고 보는 것이 과연 최정희 소설의 온전한 독법일까 하는 소박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이같은 의문의 해결을 위해 최정희 작품의 본령이라는 '모성'을 작품 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추출해 보려고 한다.

최정희 소설은 대부분 기혼의 지식여성을 등장시켜 그들의 삶의 굴곡을 '모성'이라는 화두로 풀어냈다. 가난하고 남편이 없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어머니 노릇의 고단함과 신산함을 당대 다른 작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경험의 서사로 그려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모성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론에 이르면 모성으로 회귀하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급격한 선회로 이루어지거나, 서술적 요약으로 제시되어 있어 작중인물의 진정성에서 우려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최정희 소설의 표면적 주제는 모성성의 강조이지만, 그 배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워 흔적이나 위장이 필요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모성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리고 고통받아 흔들리는, 혹은 모성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여성의 개별적·수세적인 욕망인 것이다.

핵심어 : 모성, 여성성,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욕망.

1. 문제제기

이 글은 흔히 ‘여류 2기생¹⁾’으로 분류된 최정희의 1930년대 후반 소설을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씌어진다. 1930년대 후반은 중일전쟁(1937년) 도발을 계기로 일제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실시, 조선과 일본 모두를 전쟁체제로 흡수하던 때였다. 또 문단에서는 카프 해체로 인해 구심점을 잃은 문인들이 전향하거나 생활 속으로 침잠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던 시기였다.

최정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동반자작가, 가장 여성적인 작가, 여성과 모성의 갈등을 다룬 작가 등 다양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정희 소설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거의 유사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여류다운 여류²⁾’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백철과 김윤식, 이재선, 홍기삼 등 비교적 초기 연구자들의 견해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최정희 소설이 여성의 삶과 의식³⁾을 여성적 어조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여성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즉 그의 소설은 일기체, 고백체⁴⁾, 정감있는 여성적 목소리의 1인칭 화자가 대다수이며, 이를 통해 ‘여성의식의 순수결정체⁵⁾’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1)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 『한국문학사론고』(법문사, 1973), p.240. 김윤식은 김명순, 나혜석, 김원주 등을 여류 1기생으로 규정하고, 주로 30년대에 활동했던 여류들로서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김말봉, 이선희, 백신애, 노천명, 모운숙 등을 여류 2기생으로 꼽았다.

2) 김윤식, 위의 글, p.246.

3) 홍기삼, 「최정희와 그 문학」, 『신한국문학전집 12』(어문각, 1974), p.520 ‘여자의 슬픔, 여자의 고뇌, 여자이기 때문에 겪지 않을 수 없는 불행, 이런 문제들을 최씨가 놓치지 않고 예각화시켜온 것들이다.’

4) 백철, 「主情과 觀念의 문학」,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92: 중판), p.508.

5) 이재선, 「최정희와 삼백의 여성세계」,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441.

하지만 최근 들어 최정희 소설은 여성과 모성의 갈등으로 연구되곤 한다. 한 여성으로서 사랑에 대한 욕망과 '어머니'라는 당위와의 운명적 갈등이 최정희 소설의 큰 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품 내 갈등의 귀결이 결국 모성으로 기울어졌다는 데 합의를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글은 여성임을, 어머니임을 확인한 주인공이 결국 모성으로 회귀, 혹은 모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짓는 것이 과연 최정희 소설의 온전한 독법일까 라는 소박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이 글은 최정희 작품에 나타난 '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성이란 '임신·출산·수유 같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⁶⁾을 지칭한다. 모성은 자연적이고 생득적인 것으로서 이타성, 자기소멸, 수동성, 포용성 등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모성성'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성을 아이의 출산과 양육 등 사적 영역에 가뒀 두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모성 이데올로기이다. 모성 이데올로기란,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가정에서 여성의 임무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⁷⁾을 말한다. 이 모성 이데올로기는 우선 여성이 모성의 역할을 통해서만 비로소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심어줄뿐더러, 모성을 여성의 본능적인 역할로 규정함으로써 모성에 대한 여성의 집착을 강조한다.⁸⁾

모성을 핵심으로 하는 최정희의 소설은 「지맥」(『문장』 1939.9), 「인

6) 이연정, 「모성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서구 페미니스트 논의를 중심으로」(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8), p.1.

7)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여성과 사회』 6호(1995), p.174.

8) 이연정, 앞의 논문, p.44.

맥」(『문장』 1940.4), 「천맥」(『삼천리』 1941.1~4) 등 소위 ‘삼맥’과 「정적기」(『삼천리문학』 1938.1), 「곡상」(『조선일보』 1938.7) 등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대체로 1938~41년에 발표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이 중일전쟁(1937년)을 도발한 후 태평양전쟁(1941년)까지 치르면서 일본은 물론 조선까지 전쟁태세로 돌입, 모든 것을 전시체제로 환원하던 시기였다. 전시체제가 확립되는 1938년 이후 주요 일간신문에는 전쟁의 승패 자체를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 어머니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여성의 사명과 주체가 모성’에 있으며, ‘아모리 찬미하여도 지나쳐 찬미할 수 없는’⁹⁾ 것이 바로 모성이라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모성신화를 창출해 내게 된다. 즉 1930년대 초까지 ‘식민체제에 순종적인 여성을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였던 식민지배권력이 전시체제로 돌입하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는 식민지하 어느 다른 시기보다도 여성의 역할 중 어머니의 역할 즉 모성에 주목하고 어머니 역할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¹⁰⁾한 것이다.

이같은 시기에 발표된 최정희 소설은 대부분 모성을 화두¹¹⁾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품의 표면적 주제로 설정된 것이지, 배면의 주제

- 9) 이광수, 「모성」, 『여성』(1936.5), p.13.
 10) 안태운, 「일제 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권 3호(2003), pp.76~77.
 11) 따라서 이같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최정희의 1930년대 후반 소설들이 모성을 강조한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최정희의 친일소설이라 불리는 「장미의 집」과 「야국초」 등이 1942년에 발표되었고, 심지어 「환상의 병사(幻の兵士)」(1941.2)는 「천맥」과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해 보면, 이 시기 최정희의 소설은 친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거나 이미 친일예의 유희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최정희 소설의 핵심인 ‘모성’이란 화두가 이 시기 식민지배권력이 요구하는 전시체제 부합용이 아니었다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하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또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치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입과 머리로는 한 아이의 '어머니'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나, 눈과 마음으로는 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의 역할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위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던 작중인물이 당위적 차원의 모범답안을 제출하긴 하지만, 심층은 여전히 여성성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같은 의문의 해결을 위해 최정희 작품에 나타난 '모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규명을 위해 최정희의 해방 전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텍스트는 『최정희 선집』(어문각, 1974)이다.

2. 모성과 가부장제

최정희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지식여성으로 기혼인데다 아이가 있다. 남편은 죽었거나 무능하고, 또 견제한다 하더라도 아내의 관심 밖 인물¹²⁾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저 부재한 경우¹³⁾도 있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이는 순탄치 않은 결혼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주인공이 '남의 등록없는 아내요, 어머니라는 탓'¹⁴⁾이다.

12) 「인맥」과 「환영」에 등장하는 남편의 경우가 그렇다. 「인맥」의 주인공 남편은 "돈있겠다. 인물 잘났겠다. 예편네 위해 주겠다. 지식 있겠다. 좀 좋아서 못 살겠다구 하느냐"(p.212)라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환영」의 경우는 "미국에서 8년 동안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 학식으로는나 품격으로는나 부족할 것 없고 외모도 늙름한 편"(p.187)으로 설정되어 있다.

13) 예로 「홍가」, 「풍류잡히는 마을」, 「우물치는 풍경」 등을 들 수 있다.

14) 최정희, 「지맥」, 『최정희 선집』(어문각, 1974), p.224. 이 글에서는 『최정희 선집: 신한국문학전집 12』(어문각, 1974)을 텍스트로 삼으며, 이후 모든 인용과

1930년대 조선의 현실에서 첩에다 아이 딸린 미망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직업을 구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해방 전 최정희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자녀 때문에 자신의 개별성과 독자성이 위협받는 어머니'¹⁵⁾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어머니들은 남편과 자식의 안녕과 가족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불평을 터뜨린다. 이러한 독특한 어머니상은, '여성의 정체성을 모성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기존의 통념과 배척'¹⁶⁾될뿐더러 모성이데올로기라는 틀로 유지되는 가부장제 사회와 크나큰 갈등과 마찰과 빚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모성으로 존재한다. 즉 모성에 관한 이념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으며,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또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는 미화, 찬양, 신비화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 강화되며 일상생활에서 재생산된다.¹⁷⁾

최정희 소설에는 이렇게 모성과 여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중 「곡상」과 「정적기」는 모성의 거부 혹은 포기라는 형태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즉 이 두 작품에는 그동안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조선의 어머니상과는 전혀 다른 어머니가 등장한다.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남편

각주에는 작품명과 쪽수만을 표기한다.

15) 낸시 초도로우·수잔 콘트라토, 「완벽한 어머니의 환상」,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아카데미, 1991:초판/2003:중판), p.94.

16)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심영희 외, 『모성의 담론과 현실』(나남출판, 1999), p.43.

17) 조성숙, 「어머니의 경험세계와 모성이데올로기」,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한울아카데미, 2002), pp.54~55.

과의 문제로 아이와 이별하게 되어 슬픔에 빠져 있거나 여성가장으로서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양육을 귀찮아하고 무능한 남편을 학대하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떠고 있다. '옛날의 암전한 며느리, 착실한 안해, 선량한 어머니가 아니예요.'¹⁸⁾ 라는 주인공의 직접적인 언술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아이는 엄마 발 밟은 것이 잘못되어서 어색한 얼굴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의 그 얼굴에서 문득 저의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고 소름이 쭉 끼치며 아이를 두세 번 뺨을 후려갈겼다.¹⁹⁾

문수는 영문 모를 매가 무섭기도 하려니와, 너무 무서워서 매가 닿는 족족 작은 두 손으로 막으며 바들바들 떨었다. 남이는 이러한 문수에게,
너희들 배랑뻐이 땀에 이 고생을 한다.

너까지 그 모양이니 이년의 신셀 어찌겠나
썩 글거려서 썩이 난다구 어찌 그리 신통히 닦아 먹었느냐.
사내 덕 못 본 년이 자식 덕 보겠느냐(중략)

이런 두서도 없는 신경질을 늘어놓으며 어계짬, 대가리, 아랫도리 할 것 없이 함부로 때렸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지독한 매질이었다.(p.347)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혹은 유교적 가치관이 현모, 양처, 효부를 요구했다면, 주인공은 이 셋 모두를 부정함으로써 경계에 선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스스로의 감정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데 공통적이다. 특히 자식을 대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남편에 대한 절망과 분노, 증오는 곧 남편을 닦은 자식에게 공격적인 분풀이로 나타난다. 현재 자신이 겪는 가난, 고통이 결국 남편 탓으로 빚어졌다는 피해

18) 최정희, 「정적기」, 『삼천리문학』(1938.1), p.54.

19) 위의 글, p.64.

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특히 「곡상」의 남이는 아들 문수로부터 계모임을 의심받을 정도로 가혹한 어머니이다. 이러한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어머니는 ‘피학적 자기희생’²⁰⁾이라는 기존의 어머니상과는 상반된 면모를 보인다.

결국 「정적기」의 경우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고, 「곡상」의 경우는 아편중독자인 남편이 아들을 팔아버리는 결말을 맞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기존의 작품에서 그려진, 포용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환상을 가차없이 부수는 전복적 가치를 드러낸다. 다시 말해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성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강제된 가치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반기를 들었지만 곧 이 문제가 개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이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합리화로 은폐할 수밖에 없다.

나와 어머니의 운명은 누가 이렇게 맨드러 놓았는지 몰나. 여자의 운명이란 태초부터 이렇게 고달프기만 했을가. 아니 이 뒤로 맺십만년을 두고도 여자는 늘 이렇게 슬프기만 할 건가. 그렇다면 그것은 여자에게 자궁이란 달갑지 않은 주머니 한 개가 더 달린 까닭이 아닐가. 수없이 만흔 여자의 비극이 자궁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놈의 것을 도려내는 것도 좋으련만. 그렇지만, 자궁없는 여자는 더 불행할 것도 같다. 「어머니」는 불행하면서도 그 불행한 중에서 선을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되려 행복할지 모른다.(p.56)

자궁은 생명력과 재생의 상징이자 모성의 상징²¹⁾이다. ‘자궁이란 달

20) 이인복, 「피학적 자기희생의 귀로」, 『문학과 구원의 문제』(숙대출판부, 1982), p.109.

21) 김미현, 「육체의 글쓰기」,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현대문학편』, 이화여대학교(월인, 2001), p.106.

갑지 않은 주머니'를 갖고 태어난 여성이 어머니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과 자기희생은 '불행한 중에서 선을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되려 행복'하다는 결론으로 매듭짓는다. 짐짓 여성적 운명의 상징으로 부여받은 '자궁의 슬픔'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는 최정희 소설이 갖는 독특한 결말구조의 하나로 읽어야 한다. 작품 중반까지는 사회적 가치관에 도전하고 강요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서술내용을 보이다가, 결말부분에 이르면 순식간에 모성을 찬양하는 착한 어머니로 돌아간다. 서술방식 또한 그러하다. 중반부까지는 조밀하고 섬세한 심리 묘사나 대화가 주를 이루는 반면, 결말 부분에 이르면 복합문과 장문이 사용된 서술적 요약이 주를 이룬다.²²⁾ 이는 작품 내 서술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기획된 작가의 의도를 전면에 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주인공 혹은 작가는 아직도 강요되고 억압된 모성에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여성의 욕망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당위적 차원의 위장된 결론일 뿐이다.

3. 위장된 모성

최정희의 해방 전 대표작으로 불리는 「지맥」, 「인맥」, 「천맥」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지맥」부터 살펴보자. 「지맥」의 은영은 남편 사망 이후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린다. 그녀는 '남의 등록없는 아내요 어머니

22) 구인환, 「한국여류소설의 문체」, 『아세아여성연구』, p.169. 이 글에서 구인환은 '삼맥은 묘사와 대화의 장면을 주로 하면서 서술에 의한 요약을 하는 사실적인 문체'라고 평했다.

인 탓'에 경제적으로 무척 곤궁할 뿐더러, 시가의 무관심으로 호적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 아이의 입학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이 작품 안에는 은영 외의 '불행한 운명의 소유자'로 부용, 그리고 하순 어머니가 등장한다. 부용은 은영이 가정교사로 간 집의 안주인이다. 전남편에 의해 전남 부호의 첩으로 팔려온 부용은 헤어진 다섯 살 난 딸에 대한 그리움과 새 남편의 전처소생과의 마찰로 불화를 겪고 있는 인물이다. 하순 어머니 역시 하순을 남의 집에 맡기고 외국으로 재가한 여성이다. 은영과 부용은 각각 남의 첩이라는 데 공통적이다. 은영이 '사랑'이 매개로 된, 혹은 유부남인지 모른 채 결합한 자발적 첩이었다면, 부용은 '가난'으로 인한 비자발적, 강요된 첩이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 또 은영과 하순 어머니는 전남편이 사망하였다는 데서, 부용과 하순어머니는 각각 새남편이 자신의 아이들을 미워하며 아이와 함께 재가를 허락치 않았다는 데서 공통적이다. 이렇게 불안한 '자리'는 이후 이들의 불행한 현실을 예고한다. 이들 셋은 모두 '자궁의 슬픔' 속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또 의붓아비, 의붓어미의 모성과 부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동일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한구석엔 언제나 그엘 미워하는 마음이 늘 꿈틀거리구 있어요. 그 맘을 없앨려구 꿈쩍이 노력해두 그개 안 돼요.(p.233)

부용이, 부용이가 큰 마누라 아인 못 사랑하잖어. 암만 사랑하제도 안 되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 자식이 아닌 아이들, 아니 제 자식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의 자식은 귀해할 수 있구 사랑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의 심리란 것이 참으로 기묘한 거야. 가만 보라구. 의붓자식을 미워 않는 사람이 별루 있는가.(pp.239~240)

부용과 부용의 새남편, 하순의 새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은영은 자신에게 청혼한 상훈마저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멀리 떠나게

된다. 최정희의 '계모-계부 모티프'는 다른 소설에서도 반복되는데, 「천 맥」의 허진영 역시 이러한 계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허진영은 부용의 새남편 혹은 하순의 새아버지와 동일한 인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캐릭터가 유사하다. 게다가 부용의 새남편과는 달리 작품에 전경화되어 있어 그의 부정적 행동은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부장제적 서사물에서는 악녀적 계모에게만 해당되고 남성인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의붓자식의 증오심'²³⁾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은영은 해주로 떠나기 전 상훈이 와서 형주, 설주를 자기 앞으로 입적하겠다는 말을 하는 꿈을 꾸다. 그 꿈속에서 은영은 그의 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의 말이 고맙고 슬프고 질식할 만큼 목이 메었으나 아이들을 그 이 앞으로 하면 흥가를 이가로 하라는 말이 기가 막혀서 그만 성을 벌컥 내었다. 그래서 상훈은 더 말을 못하고 무안해하며 돌아갔다.(p.246)

'흥가'를 '이가'로 바꿀 수 없다는 은영의 발언은 결국 모성과 부성은 혈연에서 비롯될뿐더러 혈연으로 불러받은 성(性)만이 아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은영이 사랑하는 상훈과 헤어져 떠나게 되는 것도 이 혈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어머니'라는 자리는 이렇게 혈연이 맺어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여성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즉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면서도 혈연이라는 것에 얽매어 사랑마저 포기하는 은영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독한 혈연중심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²⁴⁾ 결국 은영은 가부장제

23) 이호숙, 「결백한 도전과 수용」,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한길사, 1995), p.332.

24) 그러나 당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끌리는

의 우두머리인 아버지에 대한, 물론 그것이 계부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행태를 고발하면서도, 그 핵심인 혈연주의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별이 하늘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듯이 나는 지상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인내와 극기와 성실과 용기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는 결심을 굳게 하고 형주 설주가 엄마와 처음 타보는 기차가 즐거워서 바깥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손가락질을 하며 재잘거리며, 웃어대며,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 때 만족하게 그들 질문에 대답을 못해 준 일을 뉘우치며, 그것들이 자는 옆에서 그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내게 던져진 운명이요, 내가 벗어나지 못할 지상의 궤도라고 마음속에 부르짖었다.(p.246)

결국 이탈을 용인치 않는 궤도 위의 별처럼 여자에게 주어진 운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겠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좀더 세심히 관찰해 보면 이 역시 단지 당위적인 결론일 뿐이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는 아니다. “애육에서 발을 빼는 날이라야”(p.242)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부의 말에도 불구하고, “해주로 떠나는 바로 직전까지도 나는 플랫폼에서 전송하는 신부의 눈을 피해가며 행여 그가 나왔을까 하고 수없이 찾았던 것”(p.246), “차에 올라서도 마음은 여전했다.”(p.246)는 구절을 보면, 모성에 헌신하겠다는 은영의 단호한 결심은 오히려 속마음과는 괴리되어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에 더욱더 소리높이는 복창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거는 일종의 최면이나 주문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다짐

사랑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속력있고 강력했던 혈연주의는 남성 혈연이었는데 아들 둘을 남편의 가계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정순진, 『모성과 여성의 갈등』, 『여성의 현실과 문학』(푸른사상, 2001), p.232.

은 아이 들을 둔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위장된 포즈로서의 모성 선언일 뿐이다.

「천막」의 연이는 남편이 죽자 생활고와 아이 양육 때문에 재혼한 여성이다. 첩이었던 연이는 남편 사후 사회로부터 아무런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한 '등록없는 아내'였다. 물론 간호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긴 했지만 어린 아이의 양육을 해결할 수 없어 재혼을 택한다. 당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결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²⁵⁾ 그러나 아이 때문에 선택한 결혼은 곧 아이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 허진영과 아들과의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이로 인해 아들이 벗어나기 시작한다. 문제는 '허가'와 '이가'의 갈등, 즉 혈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슬픔의 원인은 간단했다. 허가네(진영)족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연이가 데리고 온 이가(李哥) 아이 때문이었다. 연이는 이 다시 없이 귀중한 아이가 자기에게 것처럼 커다란 슬픔을 갖다 줄 줄은 조금도 몰랐다.(p.250)

은영은 진호가 벗어나는 이유가 모두 허진영의 탓이라고 들린다. 허진영이 진호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기 혈연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편인 상수가 살아 있을 적에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똑똑하던 아이가 의붓아버지의 미움으로 못난이가 되었다는 연이의 논리에는 이미 '어머니'의 자리가 없다. 연이가 진호에게 다

25)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울분은 이후 일제 말에 씌어진 소설 「야국초」에서 친일의 빌미를 제공한다. 즉 가부장제의 희생물인 여성에게도, 특히 미혼모에게도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한다면 구습에 얽매인 조선을 버리고 과감히 일본을 택하겠다는 논리'로 비약하게 되는 것이다. 이선옥,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 동원의 논리」,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역락, 2003), p.258.

정하게 굴고 안아주었을 때 진호는 '본래의 얼굴'(p.254)로 돌아갈뿐더러,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집착도 강하다. 그런데 연이는 그러한 진호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자간의 유대가 끈끈하다면, 진호에게 모성애를 충분히 발휘했다라면 혈연이 아닌 의붓아버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진호의 탈선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연이는 아이 때문에 재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보다는 '일이 귀찮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유족한 집안의 마님으로 '긴 치마에 행주 치마를 입고 아늑하니 들앉아 살림'(p.249)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허진영 병원의 간호일을 하게 되자 허진영에 대한 증오가 한층 깊어진다. 이때 연이는 또다시 모성을 내세워 이혼을 선언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남편과의 비교를 통해 여러모로 성에 차지 않는 허진영에 대한 생래적인 거부와, 원하지 않는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에 따른 불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연이는 진호를 데리고 나와 보통학교 때 선생이 원장으로 있는 보육원을 찾는다. 그곳에서 연이는 진호와 원생들을 돌보며 그동안 제대로 발휘해 보지 못했던 모성을 발현할 기회를 갖는다. 그로 인해 '눈물없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다. 그러나 '눈물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도 잠시, 연이는 '하늘이 어디로 날아간 것처럼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다면 모성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연이의 허전함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것은 억압된 모성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자마자 고개를 든 여성성 때문이다. '여성의 삶의 목표는 성적인 개별성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머니가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즉 여성다움은 모성이 배제된 이성관계에서의 성'²⁶⁾이다.

26) 낸시 초도로우·수잔 콘트라토, 앞의 글, p.90.

언어의 경우 어릴 적부터 혐오의 대상이었던 김성우에 대한 그리움이 언어를 또다른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결국 개인적 모성 혹은 확대된 모성만으로는 여성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곧 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눈물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작품의 기본메시지인 것이다.

김성우는 허진영과 정반대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지맥」의 이상훈과 동일하게 신격화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인맥」의 허윤과도 상통한다. 김성우의 '후리후리한 체격, 검은 시선, 부드럽고 굴곡린 음성'(p.276)과 상훈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는 그 음성과 산림같이 깊숙한 눈'(p.235), '심원한 표정, 목조(木彫)같이 이지적인 얼굴'(p.243)은 허윤의 '둥글고 우렁찬 음성'(p.201), '산림(山林)같은 사색과 얼음같은 고독을 무한히 동경함직한 그의 눈'(p.201)같은 묘사와 매우 똑같이 복제되어 현실감이 없다. 이들은 외모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면모를 보인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지극하고 공동체적 삶에 대한 실천적 행동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 시와 바이올린 등 예술적 취향까지 갖춘 고상한 인물들이다.²⁷⁾ 이 인물들은 주인공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점서적 고통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기능한다.

성우 선생은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내 맘을 모른다. 날 조금치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길래 그렇게 아이들 손을 붙잡구 내달리다시피 훌훌히 나간 것이 아니냐. 나같으면 애들 먼저 내보내구 오래오래 온갖 애길 할

27) 김성우라는 인물은 작가의 보통학교 선생이었던 '김준성'을 모델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곳에서 배운 선생님 가운데는 김준성 선생이 있었다. 선생님을 소년은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는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재주꾼이었다. 바이올린이나 풍금도 잘 켜고 노래가사로 지었다.(중략) 그는 밥도 안 먹는 사람으로 믿었다.' 서영은, 『강물의 끝: 최정희 전기소설』(문학사상사, 1984), pp.15~16.

건데……. 애길 안하구 그냥 거저 바라만 봐두. 아 말두 없이 바라만 봐두. 성우 선생은 내가 자길 생각하듯 생각하지 않는다. 반만두 못하다. 반은커녕 십분지 오두, 아니 십분지 이두…….(p.283)

이렇게 조급해하는 연이의 모습은 이미 무성적, 초월적 존재로서의 어머니에서 훨씬 벗어나 있다. 이때 연이는 이성적 사랑을 갈구하는 온전한 한 여성으로만 존재한다. 흔들리는 연이의 마음은 이제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모성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 추구를 기원하는 이기적인 '탈신화적 모성성을 구현'²⁸⁾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작품의 주인공들에 비해 「인맥」의 선영은 좀더 적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선영은 다분히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친구의 남편을 사모하여 괴로워한다.²⁹⁾ 결혼한 지 3년 된 선영은 아직 아이도 직업도 없으며, 풍족한 생활 덕에 가사노동에서도 벗어나 있다. 게다가 '희랍적 정열과 교양'(p.203)까지 갖춘 선영을 가리켜 '산문적인 일상성에 안주할 수 없는 시혼의 소유자'³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영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면, 허윤은 냉정하고 이지적인 인물이다. 허윤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집을 나와 방황하던 선영은, '사랑하는 사람의 정숙과 행복'을 빈다는 허윤의 말 한마디에 가정으로 되돌아가 비교적 충실한 아내로 살며 아이까지 낳아 기르게 된다. 소설은 선영의 친구이자 허윤의 아내인 혜봉의 편지를 통해 여성

28) 이진희,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母像 연구」(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p.65.

29) 최정희의 「인맥」은 지하련의 「결별」과 동일한 모델을 소재로 취하고 있다. 친구의 남편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최정희는 '애인의 서사'로, 지하련은 '아내의 서사'로 풀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정자, 「지하련의 페미니즘소설과 '아내의 서사」, 『지하련 전집』(푸른사상, 2004), pp.343~368을 참고할 것.

30) 이미리, 「최정희론」(숙대 석사학위논문, 1980), p.25.

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사회적 충고를 환기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역시 지켜야 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와 그 외의 모든 여성들이 지켜 온 길을 지키는 데서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그것을 전연 몰랐던 것인데 그이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중략)(p.220)

내가 읽은 책들이 가르치듯이 모성애가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강하고 고귀하고 또 그것처럼 참된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강한 것, 그 고귀한 것, 그 참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다른 감정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게는 모성애가 강하고 고귀하고 참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이를 생각하는 내 감정도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강하고 고귀하고 참되다 생각했습니다.(p.221)

혜봉의 주장은 오랜 시간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것들, 즉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딸로 이어지는 여성의 삶의 역사를 ‘인맥’으로 보고 이를 좇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에 대해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본 선영의 생각은 정반대이다. 즉 모성이 소중한 만큼 여성적 삶의 욕망 역시 소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두 작품(「지맥」, 「천맥」)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같은 결론은 모성은 인류이자 천륜이고, 어머니된 자의 사랑은 불륜이자 궤도 이탈로 매도하는 사회적 통념을 부정한다. 여성을 어머니로 환원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주체로서의 욕망 표출까지 제한하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다.

이 작품 역시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낳은 선영이 모성성으로 회귀한 듯 보이지만 이 또한 사회의 지배담론에 부합하려는 기획된 설정일 뿐이다. 즉 준비해 둔 숙제를 제출하듯이 당위적 결론으로 제시한 것이

지 작중인물의 진정성을 담보해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자기 욕망의 추구를 자학적인 방식으로 발산하고 모성으로 갈등을 얼버무린'³¹⁾ 혐의가 짙다. 결국 최정희는 '삼백'을 통해 모성성보다는 여성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표면에 드러난 모성성은 당시에는 감히 소리높여 말할 수 없었던 여성성의 욕망을 은폐하여 주는 위장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

4. 맺음말

'한국 사회는 각성된 여성에게는 폭력적'³²⁾이었다. 자식이라는 절대 절명의 이름 앞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생을 차압당하고 자아의 각성을 포기했다. 자신의 개별적 욕망보다는 '어머니'라는 당위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 최정희 소설의 핵심이자 서사축은 '자궁의 슬픔'을 지닌 여성의 사랑과 모성과의 투쟁이다.

여성적인 글쓰기를 문제삼을 때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흔적을 남기면서 그 배면에 존재하는 양상까지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³³⁾ 이것은

31)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 『실천문학』(2003.봄), p.66.

32) 박현호, 「나도향의 '어머니'를 통해 본 모성과 근대적 주체성의 관계 양상」,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소명출판, 2004), p.219.

33) Gilbert, S. M. & Gubar, S., *The Madwoman in the Attic*(Yale U.P. New Haven and London), 1979, p.73. 김미현(1996), 앞의 책, pp.385~386에서 재인용. 이러한 글쓰기는 길버트와 구바가 '양피지(palimpsest) 위의 글쓰기'라고 본, 지배적인 이야기와 침묵하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중적 목소리로 된 언술과 연결될 수 있다. 표층의 이야기가 보다 접근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덜 용납되는 심층적 의미의 층위를 가리거나 회미하게 하는 것, 잠재적인 충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을 감추기도 하는 것, 순응하는 동시에 전복시키는 것이 '양피지 위의 글쓰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규범이나 억압에 복종하는 표면상의 의식적인 측면과 그러한 의미를 뒤집으려는 강력한 무의식의 저류를 함께 인식해야 여성적 글쓰기의 양상을 밝혀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텍스트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이 말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정희는 작품에 기혼의 지식여성을 등장시켜 그들의 삶의 굴곡을 모성이라는 화두로 풀어냈다. 가난하고 남편 없는 여성의 어머니 노릇의 고단함과 신산함을 최정희는 당대 다른 작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경험의 서사로 그려냈다. 그러나 최정희 소설의 구조는 작품의 표면과 배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모성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론에 이르면 모성으로 회귀하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급격한 선회로 이루어지거나, 서술적 요약으로 제시되어 있어 작중인물의 진정성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의 '모성'은 당대 사회의 분위기상 소리높여 말할 수 없는 여성적 욕망에 대한 은폐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정희 소설의 표면적 주제는 모성성이다. 그러나 그 배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워 흔적이나 위장이 필요한 '어떤 것', 즉 모성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리고 고통받아 흔들리는, 혹은 모성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여성의 개별적·주체적인 욕망인 것이다. 그 욕망의 이름은 결국 '사랑'으로, 최정희의 소설을 일관하는 화두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최정희, 『최정희 선집』(어문각, 1974), pp.1~528.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pp.1~434.
- 서영은, 『강물의 끝: 최정희 전기소설』(문학사상사, 1984), pp.6~153.
-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푸른사상, 2001), pp.1~643.
-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p.1~279.
- 구인환, 「한국여류소설의 문체」, 『아세아여성연구』 11(1972.12), pp.157~188.
-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여성문학연구』 3(2000.6), pp.261~287.
- 낸시 초도로우·수잔 콘트라토,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아카데미, 1991:초판/2003:중판), pp.82~112.
- 박헌호, 「나도향의 '어머니'를 통해 본 모성과 근대적 주체성의 관계 양상」,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소명출판, 2004), pp.192~219.
- 백 철, 「主情과 觀念의 문학」,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92:중판), pp.507~514.
- 서정자, 「지하련의 페미니즘소설과 '아내의 서사」, 『지하련전집』(푸른사상, 2004), pp.339~368.
- 안태윤, 「일제 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권 3호(2003), pp.75~112.
- 이미리, 「최정희론」(숙대 석사학위논문, 1980), pp.1~54.
-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 『실천문학』(2003.봄), pp.54~82.
- 이상경, 「1930년대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여성문학연구』 12호(2004.12), pp.239~267.
- 이선옥,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 동원의 논리」,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역락, 2003), pp.239~268.
-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여성과 사회』 6집(1995), pp.160~183.
- 이인복, 「피학적 자기희생의 귀로」, 『문학과 구원의 문제』(숙대출판부, 1982), pp.109~122.
- 이재선,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의 세계」,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p.428~444.

-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심영희 외, 『모성의 담론과 현실』(나남출판, 1999), pp.43~67.
- 이진희,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母像 연구」(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7), pp.1~96.
- 이호숙, 「결백한 도전과 수용」,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한길사, 1995), pp.321~353.
- 정순진, 「모성과 여성의 갈등」, 『여성의 현실과 문학』(푸른사상, 2001), pp.227~245.
- 조성숙, 「어머니의 경험세계와 모성이데올로기」,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한울아카데미, 2002), pp.52~326.

Abstract

The Study of the 'Motherhood' Shown in Choi Jung-Hee's Works

Lee, Byung-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oi Jung-Hee's late 30s' works based on 'motherhood'. Up to recently, a dominant opinion on Choi Jung-Hee's works is that the discord between femininity and motherhood leads the conclusion to motherhood. However, a simple wondering that is it a sound way of reading to interpretate that the heroine who identifies herself with a woman and a mother finally returns to motherhood makes this study started. To settle this wondering, investigating 'motherhood', the feature of Choi Jung-Hee's works, I study how it is formed and what its meaning is.

In her works, married and intelligent women appear and their winding lives are settled by means of the topic 'motherhood'. The poor woman who is married but doesn't have husband fixed as a heroine, the hardness and bitterness of her mothering is described with much more concrete experienced narration than that of any other writer in those days. In the process, resisting the patriarchy ideology superficially and giving up or denying motherhood, the heroine ends up returning to motherhood adjusting herself to the environment. However, this process being made up of a sharp turning failing to make sure of probability or represented as a descriptive summary,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ending is natural one derived from heroine's earnesty.

Because of this, though the superficial theme of Choi Jung-Hee's work is motherhood, I think the latent voice from the rear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guised or marked as it is hard to be accepted socially. It is an individual and subjective desire of a woman that is suppressed and unsettled by motherhood ideology or can't be gratified by only motherhood.

key words : motherhood, femininity, the patriarchy ideology, desire.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